

전북, 장애인체전 훈련 막바지

양궁·배구 등 24개 종목 구성
8월부터 현재까지 집중 강화훈련
도장애인체육회 '체전 준비 철저'
체전은 15일부터 서울시 일원서

서울 개최 전국장애인체전 출전 전북선수단 막바지 훈련 돌입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선수단 475명은 막바지 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오는 15일부터 5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열린다.
전북 장애인 선수단은 양궁, 배구, 수영 등 총 24개의 종목으로 선수단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집중 강화훈련에 돌입, 지금까지 부상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마스코트

나 낙오된 선수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고 있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선수들의 전국규모 대회 출전 경기실적과 훈련기간 동안 체크한 경기기록, 타 시·도 경쟁선수의 출전여부 및 경쟁선수의 전국대회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대응한 전략을 세우는 등 이번 체전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 장애인 사이클 종목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기대해 보며, 특히 사이클 종목 유망주인 이도연 선수의 3관왕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육상트랙 3관왕을 차지한 전민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100m, 200m에서 타 시도의 선수 출전이 부족해 정식종목에서 제외됐기에 2017년 연속 3관왕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육상필드의 김정호, 윤한진, 문지경 선수가 한국신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돼 전북장애인체육 육상종목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전북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장애인체육인들의 긍지와 열정을 볼 수 있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몸의 신화, 백년의 탄생'

전국체전, 오늘부터 7일간 서울 일원서 개최
47개 경기 종목 전북 포함 17개 시도 참여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 일원 7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과 함께 시작한 전국체전은 일제강점기 온 민족의 단합을 위해 열렸던 전조선야구대회에 뿌리를 두고 올해로 100회를 맞이했다.
이번 전국체전 개최식은 "몸의 신화, 백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4일 오후 6시30분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지난날 22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전국 17개 시·도 등 총 2019km를 달려 접화된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기념하는 카운트업과 체육인(심권호(레슬링), 여흥철(체조), 임오경(핸드볼)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스포츠합창단이 부르는 애국가 제창, K-POP 축하공연 등을 통해 대회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전국체전 개·폐회식은 각각 KBS 1TV와 KBSN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 펜싱, 유도, 육상, 리듬체조, 수영, 배드민턴, 태권도, 양궁, 농구, 배구, 축구 등 11개 종목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된다.
이번 대회에는 47개 경기 종목(정식 45, 시범 2)에서 17개 시·도선수단 총 2만4988명(임원 6400명, 선수 1만8588명)이 대회에 참가, 일주일 간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뉴스스



희팅을 외치는 진안군청 역도부.

진안군청 역도부, 유동주 등 4명 전국체전 출전 다관왕 도전

진안군청 역도부(감독 최병찬)는 오는 4일부터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에 나선다.
진안군은 오는 9일 남자일반부에 출전하는 89kg급 유동주(26세·국가대표)와 81kg급 박민호(25세) 선수에게 다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대주 박무성(89kg), 이승준(109kg) 선수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2015년 창단 이후, 전국체전에서만 11개의 금메달을 따내고 있는 진안군 역도부는 전라북도 선수단의 효자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18년 전국체전 3관왕을 포함해서 2016년 대회부터 8개의 금메달을 따낸 유동주 선수는 전국체전 4연패에 도전한다.

지난 달 태국에서 열린 세계남여 역도선수권대회 용상 4위에 오른 유동주 선수는 무난하게 3관왕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1kg급에 출전하는 박민호 선수도 다관왕이 기대된다. 박민호 선수는 올해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배에서 올해 국내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최병찬 감독은 "박민호 선수는 인상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최소 1개 이상의 금메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역도부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군민과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광한루 600년 기념 복싱의 열기 재현

남원시, 내일 4개국 복싱 교류전

남원시는 광한루 600년을 기념해 세계 4개국 복싱 친선교류전 및 전국의 아마복싱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5일 남원 사랑의 광장 특설링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태국, 몽고 등 4개국의 친선교류 및 전국 아마복싱인들의 기량을 겨루며, 학생부와 여성부, 성인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남원시에서는 70~80년대에 국민적 스포츠로 전국의 팬들을 TV 앞으로 모이게 했던 복싱의 열기를 재현하기 위해 전직 세계챔피언 박종팔 선수를 초청해 팬사인회와 함께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싸인클러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의 대표적인 문화재이자 관광명소인 광한루 건립 600년을 축하하기 위해 인기 가수 축하공연, 대학응원단 치어리더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광한루 600년을 기념해 세계 4개국 복싱 친선교류전 및 전국의 아마복싱대회를 5일 남원 사랑의 광장 특설링에서 연다.

축구 동호인 완주로 집합

구이·삼례서 축구대회 개최

완주군에서 축구 동호인들이 뭉친다. 완주군은 오는 6일 구이면과 삼례읍에서 구이 모악

산배 축구대회, 삼례문화예술포럼 축구대회가 각각 열린다.
완주군축구협회와 구이축구협회가 주최하는 구이 모악산배 축구대회는 구이면 모악산 축구장에서 열린다. 완주군 축구클럽 동호인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한다. 모악 유나이티드, 삼광 FC, 구이FC, 구이OB, 십오야, 태봉 등 6개팀(약

180명)이 출전해 풀리그로 승부를 겨룬다.
같은 날 삼례 완주 공설 운동장에서는 삼례문화예술포럼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완주군축구협회와 삼례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도개비, 일송, 삼우, 중앙, 천지, 동부, 재경 등 7개 팀이 출전해 청년부, 장년부 조별 리그제로 경기를 진행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이 시대의 트렌드 농업·농촌·농협에서 새롭게 즐기세요

농업으로 밝은 내일을 찾고
농촌에서 자연을 즐기고
농협의 새로운 서비스를 누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시대 트렌드를 만나 더 가치있는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농협이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을 열어가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오늘의 생활미식 까도까도 매력양파
풍속의 진주 양파로 평생건강하게!

도시가족의 힐링 취미 주말 도시농부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농촌 여행 뉴트로 감성여행

365일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 매일 밥상 미식회

첨단기술로 앞선 금융생활 금융 히스토리

농업에서 꿈을 찾는 사람들 나도 청년CEO

남원시지부 지부장 박노현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춘향골농협 조합장 이기열
지리산농협 조합장 정대원 운봉농협 조합장 서영교 남원원협 조합장 이정기
남원죽림 조합장 강병무 전북지리산낙협 조합장 이안기